

뛰는 교육물가 “개학 겁난다”

가방·참고서 등 5~15% 올라... “교복이 양복보다 비싸서야”

학원비도 5만~10만원 ↑

새 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학원비에 이어 교복과 참고서 등 신학기 용품이 줄줄이 오르면서 경제난으로 가뜰이나 어려워진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2일 광주지역 학부모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복과 가방, 참고서 등 신학기 용품의 가격이 5~15% 올랐다. 메이저 교복사인 A업체는 신학기부터 교복 출고가격을 15% 정도 인상했고, B업체도 동복의 출고가격을 14% 정도 올렸다. C업체도 동복가격을 10% 인상했다. 실제 광주지역 교복 판매점에선 남·녀 동복의 상·하의 가격이 27

만~28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에 셔츠 한 벌과 동절기 코트까지 합하면 40만원대를 훌쩍 뛰어 넘는다. 올해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 김순희(48·여·광주지 동구) 씨는 “아들 교복값이 남편 양복 한 벌 값보다도 훨씬 비싸다”면서 “맞춤형도 아니고, 기성교복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복과 함께 일부 브랜드의 새 학기 가방 가격과 참고서 등도 5~10% 정도 오르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S출판사 ‘수학의 정석 시리즈’, C교육 ‘우등생 해법수학’ 등은 전년 대비 1천 원씩 올랐으며, D출판사의 ‘전과

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복 물러입기 운동인 ‘유엔아이폼(U&I-form)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교복 물러입기 운동을 가방, 운동화, 교과서, 참고서 나눔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 학기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원비와 가방, 참고서, 교복 등 교육 물가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남편의 월급은 줄어 들고, 그렇다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이라면 “서민들이 아이들만이라도 편안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 물가 좀 잡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는 4천500원, C교육 ‘우등생 해법 세트’는 7천원이나 비싸졌다. 이밖에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지역 보습학원비도 일부 유명 학원을 중심으로 과목당 5만~10만원까지 오름 상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라 소비자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교복 등 신학기 물품들의 가격이 치솟자 정부도 교육물가 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부처 합동으로 학습지 구독비, 교복비, 학원비, 등록비 등 4가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부터 전



“다시 만나 반가워” 겨울방학을 마치고 광주에서 가장 먼저 2일 개학한 광주 농성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팔씨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농성초등학교는 오는 13일 졸업식과 동시에 봄 방학에 들어간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섬진강·보성강 개발 ‘시동’

전남도, 친환경 생태·휴식공간 조성 세계적 명소로

섬진강과 보성강이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일, 섬진강과 보성강 수계인 보성강을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세계적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섬진강 정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섬진강과 보성강 개발 방침은 지난해 12월 착공한 ‘영산강 프로젝트’에 뒤이은 것으로, 전남도내 주요 하천에 대한 개발 및 정비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전남도는 이달 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 건의, 섬진강과 보성강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섬진강 정비 및 개발을 통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수질 및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의 지리산 및 남해안과 연계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강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섬진강 개발 기본방향은 ‘친



환경적인 관광자원 확보’로 설정, 생태하천과 동·서화합의 장, 해양복합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강을 따라 래프팅 코스와 마라톤 코스, 은어 낚시터, 모래체험장, 은빛자 시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구례에서 전북·경남 등 섬진강이 지나는 또 다른 2개 도 관계자와 만나 섬진강 광역권개발사업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섬진강을 지리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제철, 광양컨테이너부두, 매화마을 등과 연계해 강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숨막힐 듯 삭막한 세상에 맑은 영혼을 봤다”

영암 출신 이충렬 감독의 다큐영화 ‘워낭소리’

잔잔한 감동 입소문 타고 흥행 돌풍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이 울었네요. 세상 살기 팍팍하다는 생각이 했는데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릴 적 기억들도 떠오르구요.” 지난달 31일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상영중인 광주극장 문을 나서는 이들의 눈가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날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준 건 농부성이 팔손 농부와 사람보다 속 깊은 늙은 소였다. <관련기사 13면> 영암 출신 이충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감동을 전하며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워낭소리’는 2일까지 9만명의 관객을 동원, 다큐멘터리 흥행 기록(극장 관객)을 세웠다. ‘워낭소리’를 상영중인 광주극장에 10일만에 2천여명이 다녀갔다. 10대부터 70대까지 관객 층도 다양하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고, 평생 극장 나들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온 이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워낭소리’는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짓는 최원균(80), 이상순(77) 부부, 그리고 30년간 동고동락해온 늙은 소를 묵묵히 지켜본 2년간의 기록이다. 워낭은 소의 귀에서 턱 밑으로 늘어 단 방울을 뜻한다.



팔손 농부와 늙은 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잔잔한 감동을 주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워낭소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나한테는 사람보다 낫다”며 소와 묵묵히 농사를 짓는 최 할아버지,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의 든든한 친구였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소를 통해 삶과 죽음, 고향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9년도 「광주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선도기술, 지역연계) 및 수요조사(전략기획) 안내

(재)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지식경제부 공고 2009-32호에 의거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 지역연계기술개발) 신규지원 및 기술수요조사(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1. 사업개요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이 핵심기술을 개발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수도형 기술을 개발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제안요구서(RFP)를 도출하기 위한 수요조사

2. 지원대상 및 기술

지역	사업구분	전략사업(특화분야)	비고
광주	선도기술	광(차세대공기-융합), 정보가전(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신규지원
	지역연계	광(차세대공기-융합), 정보가전(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자동차 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신규지원
	전략기획	광(차세대공기-융합), 정보가전(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자동차 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수요조사

3.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사업구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2년	과제당 7억/년 내외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2년 이내	과제당 2억/년 내외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과제(총괄+세부)별 7억/년 내외

4. 기술료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비고
대기업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이 5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법업계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5. 기타

세부사업분야 및 구체적인 사항은 (재)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www.gripa.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 일시 : 2009년 2월 5일(목) 14:00 ~
- 장소 : (재)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북구 용당3길 107(대촌동 958-3))

문의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 062-602-7386, 7388, 7389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산업진흥실 ☎ 02-6009-8291 ~ 2, 8163